

핵심주제

- 블라디보스토크 최초로 국제 해군 전시회 개최
- 연해주 지역 항공노선 보조금 9% 증가
- 사할린 연결 교통로 프로젝트 1월 중 발표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8년 1월 18일, «Izvestiya»

블라디보스토크 호텔들, 2018동방경제포럼 손님맞이 준비 한창

블라디보스토크와 아르툼의 호텔들은 2018년 9월 6-7일간 열리는 제4회 동방경제포럼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있음을 러시아 극동개발부 보도국이 밝혔다.

2018동방경제포럼에 투입될 호텔은 총 25개이다. 대부분의 호텔들은 이미 객실 수 확보를 진행중이다. 안드레이 타라센코 주지사 권한대행이 이끄는 객실 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팀도 결성되었다.

콘스탄틴 세스타코프 연해주 관광국장에 의하면 선정된 호텔들 모두 포럼 참가자들을 맞이하는데 있어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한다. 총 동원될 객실수는 최소 1600개에 달한다.

동방경제포럼의 문화 및 스포츠 행사는 꾸준히 개선되며 확대되고있다. 올해같은 경우 포럼기간에 범선 경주가 계획되어 있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팀을 파견한다. 즐로토이 로그 만에는 범선 전시회가 열린다.

<https://iz.ru/697229/2018-01-18/gostinitcy-vladivostoka-gotoviatsia-k-priemu-gostei-vef-2018>

2018년 1월 17일, RIA News

러시아 해양로봇대회 매년 개최 고려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첫선을 보이는 러시아 전국 해양로봇대회가 매년 개최될수도 있다고 이고리 데니소프 혁신연구재단 부사장 겸 물리기술연구부장이 밝혔다.

데니소프에 의하면 이번 해양로봇기술 대회는 최초로 전국대회 수준으로 진행되며 지상로봇, 무인기 및 현대와 미래 로봇 기술에 필수적인 구성요소 분야 대회들을 구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https://ria.ru/defense_safety/20180117/1512761033.html

2018년 1월 10일, «TASS»

연해주 국제 해군 전시회에 200여개 단체 참여

국제 해군 전시회가 최초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18년 7월에 열린다. 전시회에 200여개 단체들이 참석할것으로 예상된다. 연해주 보도국이 밝혔다. 안드레이 타라센코 주지사 권한대행은 연해주 방산업계의 업적을 홍보하여 가동률을 확보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주지사 권한대행은 중국과 한국측 초청 방안을 검토할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업체들이 전시회 참가의향을 밝혔다고 주지사 권한대행이 밝혔다.

<http://tass.ru/armiya-i-opk/4863597>

극동 국가정책

2018년 1월 22일, «Sakhalinmedia.ru»

사할린 주, 지역 잠재력 순위 상위권 진입

지역정책발전센터 전문가들이 '지역잠재력순위' 첫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시범 프로젝트로 상당하지만 활용되지 못한 잠재력을 가진 극동연방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사할린 주는 순위 상위권에 속했다.

러시아 교통 전략의 우선 과제로서 북극항로 복원이 설정되어 프로젝트 추진지역에 해당하는 극동연방관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의 주요 과제는 극동의 매력을 살리는 것입니다. 포럼에서 극동이라는 큰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각 행정단위, 특히 극동지역의 행정단위 내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것도 중요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은 극동연방관구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있다.

<http://sakhalinmedia.ru/news/663041/>

2018년 1월 19일, «RIA News»

러시아와 한국, '9개 다리' 협력 논의

러시아와 한국의 실무팀들은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 일환으로 3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제창한 '9개 다리' 협력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밝혔다.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러측에 에너지와 교통을 포함한 '9개 다리'를 놓아 협력을 할것을 제안하였다. '9개 다리'란 가스, 철도, 북극항로, 조선업, 실무팀 구성, 농업 등 협력분야를 말한다.

<https://ria.ru/economy/20180119/1512899843.html>

2018년 1월 6일, «TK Zvezda»

일본, 2019년에 러측과 쿠릴열도 대화 재개 희망

일본측은 올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양자 회담 진행도 희망한다. 일본 정부는 쿠릴열도의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기대한다.

https://tvzvezda.ru/news/vstrane_i_mire/content/201801060109-bwdk.htm

극동 경제

2018년 1월 23일, 러시아 극동개발부

2017년도 극동 자본투자 성장세 러시아 평균 이상

해당 정보는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 극동개발부 차관이 2017년 극동개발업무 보고 및 2018년 우선과제를 논하는 회의에서 밝혔다. 회의는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프의 주관하에 진행되었다.

전권대표는 제 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2017년 말경 러시아 극동에 86개 신규 업체, 35억 루블 투자금 유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된 점을 상기시켰다. 극동 작년도 실적은 89개 신규 업체, 투자금 37억 루블로 집계되었다. 7500개의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https://minvr.ru/press-center/news/12130/>

2018년 1월 9일, «TASS»

연해주 지역 항공노선 보조금 9% 증가

연해주 지역 국내선 항공노선에 대한 보조금이 2018년도에는 2억 1600만 루블 이상으로 2017년 대비 9% 증가한 수준이다. 연해주 내 노선은 기존대로 오로라와 달네레첸스크 아비아 두 항공사가 운항할 것이라고 연해주 보도국이 밝혔다.

<http://tass.ru/ekonomika/4861233>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8년 1월 11일, «TASS»

사할린 연결 교통로 프로젝트 1월경 발표

러시아 대륙부와 사할린을 이어줄 교통로 프로젝트의 기술경제 타당성 연구가 1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막심 소콜로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교통로는 보다 큰 프로젝트의 일부로 러시아와 일본을 사할린을 통해 육로로 연결하는 첫 걸음이다. 육로가 연결이 되면 양국은 연간 4000만톤 이상을 소화하는 교통로를 얻게되어 상당한 혜택을 보게된다.

대륙부와 사할린을 연결하는 교통로 건설 투자규모는 약 5000억 루블이라고 M.소콜로프 장관이 2017동방경제포럼 인터뷰에서 밝혔다. 장관에 의하면 2020년대 상반기에 실현이 가능한 프로젝트이다.

<http://tass.ru/ekonomika/4867613>

2018년 1월 11일, «IA Vostok-Media»

바니노 페리 노선 2019년에 재건축

바니노와 홀름스크 해안의 페리항 재건축 작업이 내년 시작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 노후된 페리항 시설 구조물을 실질적으로 전체 교체를 수행해야 한다. 소련정부의 결정으로 사할린과 대륙을 페리노선으로 연결하게 된건 1964년이다. 소련 전체가 동원된 대건설 프로젝트로 1973년에 성대한 개통식이 있었다. 이후 페리항 시설은 유지보수 작업과 리모델링은 주기적으로 있었으나 재건축은 단 한번도 없었다.

대대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있었던 국가회의 총회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말까지 바니노와 홀므스크 항만 인프라 재건축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https://vostokmedia.com/news/society/11-01-2018/vaninskuyu-paromnyuyu-perepravu-rekonstruiruyut-v-2019-godu>

참고정보:

2017동방경제포럼 조직사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로벌 경제 연구, 분석을 진행한다. 오늘 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들은 몬테비데오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개최지가 다양하며 이를 통해 한 자리에 세계 사업계의 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부관계자들을 모을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며 공익사업과 자선프로젝트를 지원할수있다.

www.roscongress.org